

## 한·러 동반자 관계 발전 및 에너지 협력 체제 구축 방안

- 일시: 2008년 2월 19일(화) 오전 7시
- 연사: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 토론: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주최: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공동

### 주 제 발 표 및 지 정 토 론

#### ■ 사회자(곽재원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 이재오 의원님께서 새 정부의 에너지 자원 외교의 방향과 특히 에너지 강국인 러시아의 패트로 크렘플린 외교 실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논의해 줄 방기열 원장님도 모셨습니다. 이 의원님 말씀을 30분간 듣고 10분 동안 논평을 들은 후에 여러분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럼은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엄선 되어 나오신 분들 중에 김승환 숭실대 교수, 김정준 한국수출입은행 전무, 이종원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김형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전경만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김신중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의원께서 참석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은 작년 말에 중앙일보와 에너지경제연구원, SK가 공동주관 하에 블라드보톡에서 4자, 한국·러시아·중국·북한이 에너지 포럼을 한 내용을 정리한 기사입니다.

지금부터 이 의원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

: 만나게 되어 반갑다. 아카데미한 포럼에서 발제를 해본 일이 거의 없다. 나는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주로 정치 현장에 몸을 담아 와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연구단체 이런 데는 가본 기회가 적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린다. 또 오늘 참석하신 학계, 연구계, 업계, 법조계, 공공기관에서 오신 면면들을 보니까 평소에 이런 분들과 토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은 나로서는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정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재오’

하면 강성에다 맨 날 싸움만 하는 사람으로 이미지가 알려져 있어서 본래 모습과 많이 왜곡되어 있다. 이런 기회에 이미지 쇄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새 정부가 아직 들어서지 않았으나 이명박 당선자에 의해 특사로 러시아를 옛세 다녀왔다. 아마 러시아와 수교한 이래 대한민국에서 러시아 특사든, 외교라인이든, 정치라인이든, 유일하게 내가 러시아 장관급을 13명을 만났다.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렇게 밤까지 사람을 만나는 특사는 처음 봤다고 이야기 한다. 내가 그렇게 가자마자 신발 끈을 조여 맨 것은 한국과 러시아 관계가 조금 불편해 있기 때문이다. 정말 한국이 러시아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에 대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 같고, 이명박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 그 사람들이 신뢰를 갖거나 그런 거 같지 않았다. 특사가 왔다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온 건 아닌가라고 생각한 거 같았다. 나는 정치인이긴 하나 외교인으로 다녀왔기 때문에, 여기 왔던 모든 언행이 이명박 정부의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다. 그 쪽도 이명박 당선자에게 관심 있다. 정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목표를 두 가지로 삼았다.

첫째는 러시아와 한국이 동부시베리아 개발에 참여. 두 번째는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일대와 모스크바 넘어가는 시베리아 일대를 개발함으로써 인해서 결국 북한을 끌어내서 동부시베리아를 동북아의 평화 기지로, 즉 평화와 경제의 기지로 동부시베리아를 한국과 러시아가 생각해야겠다. 자연적으로 북한이 끌려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더 큰 영향력을 시행해야 하고, 그것이 중국적으로는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순히 동부시베리아가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이득을 한국 정부가 갖는 자원외교를 넘어서, 한국 정부가 갖는 이익과 러시아 정부가 갖는 꿈이 극동에서 만나는 그 지점을 선택해서 경제와 평화 번영의 축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내가 러시아에서 장관들을 만나 설득하는 주요 논리였다.

대개 우리가 동부시베리아에 대해 석유, 가스 자원만 생각하는 일반적인 패턴이 있는데, 현지에 가서 본 것은 현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철도, 도로, 항만, 조선, 문화·관광 이런 전 부분에 대해 개발의 여지가 많으며, 전 분야에서 한국과 러시아 협력하는 것이 한·러의 새로운 시대를 열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돈 문제. 돈 문제로 되는 것이 시베리아 철도와 중단철도다. 지금 대개 내가 연해주 주지사와 블라디보스톡 시장을 만나 얘기해보니, 실제로 당장 사할린과 육지와의 연계와 2012년 APEC 개최를 위한 도로 정비 등 이런 것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원하고 있다. 우리로서는 선불리 사업상의 참여를 확정할 수 없는 것이 러시아가 동부시베리아 개발로 금년에 세운 예산이 293억 정도 되고, APEC에 대한 예산은 57억불, 사할린 개발에 대한 예산 79억불 정도다.

우리가 호텔이나 다리를 지을 경우, 건설비용을 우리가 하더라도 그 이후에 소요되는 경비, 투자 검토해보면 그 점에 대해 담당하기 어렵다. 지금 동부시베리아 연해주 일대 전부에서 1년에 약 10만 명 정도 인구가 감소한다. 우리나라 농촌 인구가 1년에 3만 정도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특단의 개발 계획을 세우지 않는 이상 동부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대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로 모스크바 쪽으로 집중 현상이 있다. 그걸 그대로 두면 10년 20년 안에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 블라디보스톡에 현대 호텔이 있는데, 현대 호텔이 이명박 당선자가 현대에 있을 때 러시아 동부시베리아에 별목하러 가서 호텔을 지은 게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20년 넘었는데 불과 흑자를 낸 것이 2년 전이다. 2년 전부터 현대에 1년에 3억 정도의 돈을 본사에 준다고 한다. 그 정도로 이문을 내기 어렵다. 그리고 그 상태로서는 더 이상 발전하기가 어렵다. 대개 우스리스크 쪽에 있는 연해주 쪽에 있는 고려인들 집단 마을 이런 쪽에 가면 콩 등 농작물이 무공해로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다. 이것이 생산하는 것이 판매하는 데 있어서 유통통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생산 할 수 있는데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소 한 마리를 250만 원 정도에 사고 2년 키워서 400만 원 정도에 파는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500만 원 정도의 소를 50만원에 산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현재 그 지역을 그대로 두고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 돈으로 호텔을 짓는다. 고속도로를 만든다 이런 것을 통한 수익으로는 우리나라 기업 진출이 쉽지 않다. 루스키섬에 호텔을 지어놓으면 1년에 국제행사 할 때 한두 번 빼고는 거의 빈방이다. 호텔을 짓는 돈이라던지 이런 경비는 러시아에서 대고, 우리가 기술을 제공하고, 운영에 있어서 러시아 정부가 일정 부분 책임을 져주는 형태가 아니면 한국 기업이 바로 진출하기 어렵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가 자원외교 에너지 외교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철도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남북 종단철도다. 대개 우리가 부산~서울~평양~신의주 해서 이르츠크~모스크바 가는 길이 약 11000km 정도 된다. 11000km면 KTX가 시속 300km로 달리는데 이렇게 달리면 중간중간 쉬고 닷새정도 달리면 충분히 도착한다. 일단 그것이 확보가 되어야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자원외교·에너지 외교에서 나오는 석유라던지 가스 라인을 개발한다던지 기본적으로 물류이동의 루트를 확보하는 것이 된다. 그러지 않고 거기 가서 석유자원 개발한다 해서, 대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전부 개발하고 이익에 대해 배분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과 문화가 소통하는 게 우선이다. 그게 제일 급선무다라고 판단했다.

사람과 문화가 이동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부시베리아 가스를 한국까지 넘어오는 판로를 얻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조선 항만 도로 이런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는 러시아 자본과 한국의 기술 합쳐지고 여기에 중요한 것이 북한이다. 여기에 극동을 평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한 것은, 한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동부시베리아와 극동을 개발한다 해도 북한의 노

동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은 한국이 설득해 끌어 들이는데 한계가 있다. 러시아가 담당해야 한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북한으로 하여금 동부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한국과 같이 하기를 합의한다면, 결국 한국 정부가 북한 정부와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핵인데,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서 러시아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조언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문제를 러시아가 더 강력하게 해결을 주문하고, 그리고 한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극동과 동부시베리아 개발에 함께 참여하는 이 구도를 형성하지 않고는 남북의 중단 철도와 이 중단 철도를 잇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건설이 사실상 어렵다.

그 점에 대해 러시아 각료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내가 진심을 담아 왜 한국정부가 극동에 꿈을 갖는가에 대해 “물론 자원, 에너지가 중요하나 우리가 당신네 나라에 와서 석유나 가스나 달랑 따먹고 돌아가는 그런 외교는 하지 않는다, 우리로서는 러시아 관계보다 더 급한 것은 북한과의 관계이다, 북한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결국 러시아와 함께 하는 것이며 거기에 이익을 함께 갖는다고 하는 그것을 북한에 전달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북한 스스로 입장을 게재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것이 6자 회담을 통해 가능할 수 있겠으나, 6자회담을 벗어나서 러시아와 한국과 북한이 해결해야 하는 또 하나의 과제다라고 했을 때, 러시아도 동의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면 우리가(러시아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와 함께 회의하도록 하겠다. 이 특사가 필요하다면 생각이 있다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만나서 정말 이 문제를 남북관계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

특사 방문기간 끝날 무렵에는 크레믈린 외교장관 만나서 한 이야기와 보좌관 만나서 한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법률 문화 교육에 관계되는 장관을 제외하고는 경제, 산업, 개발, 지역 장관들을 다 만나서 이야기 했다. 시종일관하게 같은 논리로 설득하고 지도를 보이면서 동부시베리아 개발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 분들이 상당히 많은 반응을 가진 거 같다. 내가 갔을 때는 취임식에 러시아 축하사절단 대표로 하원의장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귀국한 날 최대의 사절단으로 총리를 단장으로 해서 보내겠다는 통보를 알려왔다. 일단은 저희들 이명박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그동안에 러시아 정부가 긴가민가했던 왜 한국이 동북아 시베리아 평화에 관심을 갖는가에 대해 현재적 이득만 챙기려는 것 야인가에서 부터 한국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경제와 평화의 번영의 축을 극동에서 이루려는구나 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왔다.

갔을 때 푸틴을 못 만났는데, 3월 2일에 선거고 5월에 취임인데, 푸틴 후임 대통령으로 지목되는 매드베데프가 비행기를 타고 전국을 다니고 있어서 모스크바에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야 되는데 이틀 더 기다리면 되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특사로 가서 호텔에서 죽치고 기다릴 수 없어서 왔다. 서울 와서 초청장이 왔는데 푸틴을 만나려고 하면 가면되는데 못 갔다. 여기 사정도 있어서. 취임식이 끝나고 한·러 정상회담 할 수 있는데 그 때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러시아 대사와 친

해졌다. 오고가며 식사도 하며 친해졌는데, 러시아 외교관의 초청을 받아 갔더니 러시아 쪽에서 정말로 한국과 손을 잡고 극동개발을 하고 싶다. 원한다면 한국의 입장을 많이 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오면서 실무적인 것 하나를 요구했다.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자가 90일이다. 기업이 이래서는 활동하지 못한다. 단기비자 3년으로, 장기비자 5년으로 해라. 적어도 3년 내지 5년 동안에 기업이 와서 계속해서 일 할 수 있어야 성과가 나는 거지 기업인이 와서 90일 와서 가고 이렇게 불안해서 안 된다. 외교라인 통해 해결해 달라했더니 그러면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실무조항 만들겠다고 했다. 석유공사가 러시아 정부와 맺어놓은 석유, 광물 탐사 기한이 끝나는데 7월로 끝나는데 앞으로 3년 정도 더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해서 몇 가지는 해결하고 왔다.

문제는 결론적으로, 동부시베리아를 개발하기 위해 단순히 자원만 이야기해서는 러시아와 협력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이익만을 내세워서는 깊이 논의하기 어렵다. 우리의 국익과 러시아의 국익이 합쳐져야 함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새로운 경제와 평화라는 두 개의 축을 형성했을 때 러시아 정부와 북한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날은 자기들이 푸틴대통령이 아주 인사를 특이한 방법으로 한다. 우선 샹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어야 하고, KGB출신이어야 하고, 친해야 한다. 이러지 않고는 권력 중심에 들어갈 수 없다. 러시아 외환 보유가 세계 3위인데 4800억불 정도다. 실체는 6100억불이라고 한다. 석유로 돈이 계속 나오니까 장관들이나 푸틴의 비서 측근을 만나면 자신 만만하다. 푸틴 정부가 앞으로 20여년은 간다고 한다. 이래서 자신들은 앞으로 20년간은 구소련의 부활로 만들 수 있는 돈과 자신이 있다. 거기는 민주주의라는 것도 명단 만들어서 투표 붙이면 푸틴을 1번으로 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고 자신은 다시 총리하는 식으로 짜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이 생겼을 때 권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푸틴 정부의 기본적 입장이다. 그러므로 푸틴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동북아의 이해와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가 맞아야 자원외교든 경제외교든 성공되는 거지 우리들의 일방적인 경제적 이득을 앞세우면 성공하기 어렵다.

주제에 맞는지 모르겠으나,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의 나라 경영을 맡았다. 기업으로 말하면 5년 동안의 고용사장이다. 대한민국이라는 회사를 우리가 경영 책임을 맡은 최대주주가 된 셈이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을 잘해서 나라를 좀 더 한 단계 발전시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목표다. 어제 유우익 실장이 지난 10년을 평가함에 있어 '잃어버린 10년'이라 평가한 것은 그 부분은 일면 맞는 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역사라는 것은 완전히 잃어버린 다는 것은 없다. 다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서 국민들의 기대에 차지 못했고 나라의 발전을 후퇴시켰다. 이런 점을 더 강조된다는 점이다. 10년 전체를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유 실장이 이야기를 한 거 같다.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지난 10년의 역사를 이어 받아서 잘못된 점은 고치고 잘된 점은 이어받아서 앞으로 5년동안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 협조 바란다. 마치겠다.

## ■ 사회자

: 이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신 분은 처음이다. 말씀 들어보니 짧은 시간동안 현장을 자세하게 많이 공부하고 오셨다. 평화와 개발이라는 보완적 시각에서의 자원외교에 대해 강조했다.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인구가 1억 4천만 명인데, 전부가 서쪽에 몰려있고, 극동 쪽에는 구소련 때 8백만이었으나 자꾸 줄어서 현재는 6백 50만 명만이 극동에 있다. 이어서 방기열 박사님 말씀 있겠다.

## ■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먼저 미래포럼을 주관하시는곽재원 소장님, 김주현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재오 의원님과 함께 주제 발표에 토론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한다.

짧은 시간동안 많은 것을 파악하셨다고 생각한다. 석유, 가스, 자원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문화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우선적으로 있어야겠다는 차원에서 자원 개발 인프라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신 거 같다. 더더욱 북한의 노동력을 끌어내서 평화와 번영의 축을 구축하자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 같다.

오늘 주제가 에너지 협력 구축의 내용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부분일 수 있겠으나 에너지 문제를 짚어 보도록 하겠다.

지금 에너지 여건을 유가에 맞춰본다면 2002년에 연평균 가격이 93.88불이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짜 90.56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나 원자재 가격도 동반상승해서 경제 상당 흐름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도 에너지 총 수입이 949억불이었다. 우리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수출한 실적이 745억불이었다. 열심히 자동차와 반도체를 수출하고도 약 200불 이상을 보태야 에너지를 수입하는 이런 문제에 당면했다. 다르게 표현하면 자원 확보를 위한 강력한 정책 구사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다. 우리가 보통 해외진출을 대상으로 할 때는 러시아를 비롯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이렇게 볼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의원님 다녀오신 러시아가 가장 우선 대상국으로 부상되고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천연가스 보존 1위, 수출 1위, 그 외에 석탄, 우라늄 등등 풍부한 자원이 많이 부존되어 있다. 또한 우리가 보통 자원외교 하면 원거리기 때문에 직접 가져오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말씀하신 철도 연결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러시아를 통해 쉽게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렇지만 러시아에서는 원유, 석탄은 수입 경험 있으나, 아직 천연가스 수입 경험은 없다. 올 하반기에 사할린 투로부터 150만 톤이 들어오기로 했으나, 내년 초로 연기

된다고 한다. 어쨌든 우리가 만약 러시아 가스 개발을 하면 사할린 쓰리를 보고 있는데 2012년 이내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르츠크 지역, 코비타 가스전을 집중 공략할 필요 있다. 만약 새 정부가 경제 성장 7%를 가정한다면, 특히 가스 부분의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비타 가스전을 우리가 예의주시하여 협상할 필요 있다. 대충 우리가 코비타 가스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루트 첫 번째가 하바로프스크,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오는 라인으로 4500km이고, 두 번째가 러시아, 중국 북경을 통해 서해쪽으로 해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4400km되는 라인이 있고, 세 번째가 바이칼 남부지역을 통해 중국 선양, 대련, 서해안을 통해 들어오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할 거 같다. 가스 라인도 라인지만 대규모 물량에 대한 소화 가능한지, 아니면 가격협상 문제도 있다. 더욱이 중국도 러시아와의 적극적 협상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코비타 가스전을 통해서 최대한 최대 전략 구사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자원 개발의 지구촌 참여도 있으나 이것 보다는 가스포럼의 주식을 단 2%로라도 획득한다면 우선 협상 대상에 상당한 역할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최근에 고유가 상황에서 또 다시 부상하는 것이 석탄이다. 석탄이 중국 폭설로 인해 수출 중단이 되어 있고, 호주 홍수로 인해 상당한 공급 중단 상태. 더욱이 고유가 차원에서 석탄에서 가스를 추출하는 RGCC라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향후 석탄 확보가 상당히 심각하게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 LG상사도 상당 부분 관여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입찰이 러시아 최대 금속회사 비첼이라는 회사가 입찰 받았다. 이 회사가 수출처를 찾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한국전력이 해외 진출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회사와 상당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도 부분이 약 390km를 보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철도 간 연계가 잘 된다면 우리나라는 북한을 경유해서 한다면 남북경협에서도 가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거 같다.

또 우라늄광이 보존되어 있다. 우리가 코비타 가스전은 물론이고 동북아에 현재 앞으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 전력망 계통 연구다. 우리나라 기업이 캄차카 반도 해상 육상 부분 개발에 상당 참여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계속 주시할 필요 있다.

지금 해외진출에 단순히 광물 확보보다는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도로, 항만, 철도 등 소위 패키지형 진출이 최근에 성과 이루고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코비타 가스전은 매가 폴리스라는 대규모 복합 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엘가 요이탄 탄광 있는 지역은 대규모 종합 화학단지 조성 계획이 수립 중이고, 특히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은 2012년 APEC 정상회담 개최예정도로 종합도시개발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신도시 건설과 연계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한다면 나

름대로 큰 성과를 기대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단순히 자원 개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원 할 수 있는 맥을 찾아서 상호신뢰구축이 이뤄질 거 같다. 이를 기반으로 하면 그 성공률은 높아 질 것이다. 러시아에서 자원확보는 전략 구사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마치겠다. 감사하다.

## 자 유 토 론

### ■ 사회자

: 두 분이 같은 맥락이다. 의원님께서서는 자원과 경제를 보완적 시각에서 말씀해 주셨고, 방 원장님께서서는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패키지 진출 전략을 말씀하셨다. 이어서 질의응답.

### ■ 안충영 중앙대 국제대학원 교수

: 자원외교, 철도, 문화까지 그리고 북한까지 포괄되는 종합적 시각 아래 러시아의 자원 협력 그리고 확보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전적 동의한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시아의 석유, 가스, 기타 광물자원을 놓고 사실은 중국, 일본, 한국이 치열한 삼파전을 벌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학자들의 공리공존을 넘어서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라는 개념이 여러 각도에서 접근되고 있고 시도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에 볼 때 중국의 전략, 일본의 전략, 그리고 사할린 광물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까지도 포괄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염두에 두고, 석유의 최대 소비국이 중국, 일본, 한국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공동체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일본 협력도 받아내고 중국 협력도 받아내고 미국의 협력도 얻어 낼 수 있겠다. 그래서 북한을 하여금 공동체 속에서 더 유도될 수 있는 이러한 힘의 원심력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 이재오 의원

: 전적으로 동의한다. 마지막 날 러시아 정부에서 동부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한·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자, 공동 위원장은 양쪽의 대통령이 하자 라고 제의했다. 아주 좋고, 거기에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정례적으로 한국과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는 장을 개설하자. 한·러·북 3국 회의를 먼저하고, 동북아공동체를 위해 중국과 일본과 한국과 북한, 러시아 5개국이 새로운 동북아 축을 개설하자고 했다. 일단 한·러 정상회담의 의제로 한국 측에서 제의했으면 좋겠다고 러시아 정부에서 말했다. 저희들 생각도, 우리가 머뭇거리는데 사이에 실제로 사할린 쪽 일본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고, 연해주 부분에서 농업 부문은 중국이 거의 들어와 있다. 3년 전에 연해주 갔



을 때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연해주 농업 분야는 거의 중국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자본과 사람이 들어가 있다. 자원 부문은 일본이, 농업 부문은 중국이 들어와 있어서 한국이 머뭇거리다 보면 기회를 놓친다. 한국이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이 중간에 끼어있어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지 않으면 동부시베리아 개발이 어렵다. 블라디보스톡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비행기 타고 갈 수 없잖은가, 고속 철도를 타고 가야한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러시아와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중국과 일본이 우리를 치고 먼저 들어 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안 교수님 말씀하신 동북아공동체 구상은 바른 방향이라 생각된다.

### ■ 김석우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

: 박관용 전 의장께서 이번 선거는 이재오 의원님이 다 하신 거라고 들었다. 러시아 정보 능력이 대단한 거고, 이재오 의원께서 특사로 가셨다는 자체가 새 정부의 자원외교, 한·러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특사 파견으로 충분히 메시지가 전달 됐다.

동부시베리아의 인구가 700만이 안 되는 상황이고, 브레진스키 저서에 따르면 공산주의 체제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지정학적으로는 과거 소련이 망한 이유 중 하나는 동부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망했다. 군사적으로 좋았을지 모르나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특사님께서 방려하셔서 자원외교와 시베리아 공동 개발은 좋은 메시지였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푸틴 대통령의 두려움 중 하나는 동부가 15억 중국에 의해 휩쓸리는 것 아니냐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쪽이 갑이라 해도, 동부시베리아, 연해주 부분이 중국에 압도되지 않는가라는 푸틴의 두려움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은가. 혹시라도 방려했을 때 이런 이야기 있었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크지만 전통적으로 영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막은 나라다. 러시아인들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과거 소련은 역사의 큰 흐름상에서 한국에 나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따라서 너희들과 손을 잡으면 굉장히 좋은 것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왔었다. 그런 의미에서 특사님의 러시아 방문을 통해 러시아는 큰 메시지를 전해 줬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용해다오라고 했다고 본다.

두 번째 북한과 관련해서는 개방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철도 등 인력은 좋은 생각이나 제 생각에는 러시아 벌목공으로 북한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우리가 농업 개발할 때 북한 노동자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다. 그러나 철도 문제는 지금 북한 체제 갖고는 아직 경제성 없지 않나. 미끼로 걸로 북한을 끌어오는 것 이외에 현실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 ■ 김신중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

: 러시아와 한국이 가까워 진 것은 얼친 시대다. 돈을 좀 썼기 때문에 이념을 넘어

서 이해관계로 진행됐다고 본다. 현재 갑자기 러시아는 유가, 가스 가격이 오르고 유동성이 넘쳐나는 나라가 됐다. 거기다 푸틴 정부가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있으면서 유럽에 대해서도 과위행사하고 있다. 동시베리아 쪽을 봐도 세계 세븐 시스터에 속하는 이런 거대 자본에 대해서도 은근히 힘을 행사하려고 한다. 내가 보기에 러시아는 세계 자원 시장을 수직적으로 결합을 해서 지배하려는 트렌드를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 한·러 양국이 가까워지려면 서로가 아쉬운 것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석유, 가스를 내세워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크게 보라, 그리고 북한 변수를 반드시 고려해라 이런 말씀을 명심하면서도 하지만 가장 아쉬운 것은 석유, 가스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뭐냐. 동쪽을 개발해야 하는데 동쪽에는 사람도 부족하고 돈은 넘쳐나나 장비, 물자가 부족하고 철도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산항이나 울산항이나 동해항에서 물자를 배에 잔뜩 싣고 가서 연해주 쪽에 풀어 놓고 개발해야 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한국 진출 가능성 크다고 본다. 결국은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우리가 아쉬운 것은 석유와 가스와, 러시아가 아쉬운 것은 어느 나라든지 개발 해다오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양자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 정상께서 러시아에 가서서 서로 악수하고 희미하게 모임 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구체적으로 회의한 것을 엮어서 사인하고 하는 빅딜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며 자원외교를 본다. 러시아가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적당히 와서 투자하라는 것은 아니고 코비타 유전이나 사할린 3에 대해서 한국 측이 아쉬운 것을 준다면, 한국 측의 자산, 예를 들어 가스공사 지분을 요구한다던지 우리나라 도시가스 회사 몇 개를 살 수 있게 해달라던지 이런 과감한 제안할 수 있다고 짐작만 하고 있다. 혹시 러시아 갔을 때 이런 쪽 이야기도 듣고 오셨는지 듣고 싶다.

## ■ 이재오 의원

: 러시아에 갔다 25일에 도착해서 26일에 와세다대 초청 특강이 있었다. 특강 주제도 이명박 정부의 동북아 정책이었다.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 중국이 동부시베리아 개발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갖고 있지 않다. 한국의 동부시베리아 개발 참여는 경제를 떠나서 양국의 역사를 봤을 때 의미가 있다. 한국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짐으로 인해 중국이 갖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감소, 일본이 동부시베리아와 연해주 일대에 대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듯. 러시아에 가서 가장 말하면 안되는 게 미국하고의 비유다. 구체적으로 말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나, 사석에서는 푸틴 정부의 실용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실용정책이 딱 맞다. 푸틴의 정책 방향과 이명박 대통령 방향이 맞다. 이 두 가지 맞는 점을 극동에서 동시베리아 지역에서 펼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러시아 관료도 하고 나도 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우리가 극동에 진출해서 북한을 배제하는 건 어렵다.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끌어들이, 북한 벌목공들이 연해주에 와서 돈을 벌어서 한 달에 북한에 보내는 돈이 300달러다. 우리 돈으로 얼마 안 되는 거 같으나, 그들이 대개 버는 돈

이 한 7~800불 정도를 버는데, 한 달간 많이 버는 사람은 1000불이다. 지금 연해주에 나와 있는 북한 노동자가 1600~2만 명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북한 노동자 20만 수준 이것만으로도 연해주 투입되면 북한 경제 호전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필연적으로, 우리가(한국) 러시아와 손을 잡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 낸다면, 현재 북한의 경직된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못한다. 외부적으로부터 공개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면 좋겠다. 북한의 개혁개방을 그들 손에 맡겨두면 어렵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새로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북한이 경제적 이익 때문에 끌려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석유 가스가 기본이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사실 그게 기본인데 석유, 가스만 따먹으려고 들어가면 석유, 가스가 안 된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뜩이나 한국에 대해서 이런 불신이 있다. 이 사람들 좀 잘산다고 와서 석유나 유전이나 개발하고 가스나 개발해서 우리를 완전 봉으로 아느냐, 우리를 봉으로 보고 와서 그 얘기만 실컷 하고 가고 말이지 이런 불신이 있더라. 푸틴의 친구라는 분이 저녁에 숙소에 왔었다. 석유 가스 얘기만 너무하고 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 물론 지금은 양국 간의 경제적 이익이 최우선이다. 그러나 그걸 위해서도 큰 안목으로 멀리보고 극동의 질서를 재편하려고 하는 구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푸틴 정부가 3월 선거 끝나면 푸틴이 총리가 되고, 푸틴이 전국구 1번이니까 총리로 지목되겠죠. 그런데 거기는 전혀 거부감이 없다. 그만큼 러시아 체제가 뭔가 자기들이 새로운 러시아 대국 건설을 위해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것이 푸틴의 실용전략이다. 그 실용정책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이명박 정부가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겠다는 이유도 그러한 새로운 정책을 갖고 국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와 맞지 않나 생각한다.

■ 박승두 마포안보포럼 장군

: 정부의 747성공을 위해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 안정, 한·미관계의 강화인데,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시베리아 개발 성공적으로 한다면 한반도 미래 전략의 구체적 접근이라 생각한다. 너무 골치 아팠던 국내문제, 한반도 문제 이것을 뛰어넘어 아시아로 시베리아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현실적 문제에서 미래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근원이 되는 힘, 안보적인 입장에서 그동안 힘이라면 한·미 동맹, 이를 바탕으로 한 군사관계, 우리의 자주 역량, 국민의 통합·화합, 군의 사기 이런 문제가 미래 안보전략 수행의 기본이 되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나락으로 떨어져있다. 향후 이명박 정부가 이를 어떻게 상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뤄질 때 우리의 미래 전략 또 시베리아 개발이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 이재오 의원

: 이명박 정부의 5년 동안의 목표는 동맹 강화가 첫 번째다. 미국과의 동맹 강화다.

만약에 북한이 그들 스스로 체제가 붕괴됐을 때,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에 들어가면 우리는 통일되기 어렵다. 적어도 북한 체제가 붕괴되었을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한국이 강화해야지, 그걸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 강화하면 안 되므로 그런 의미에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 대해 생산적 상호주의를 해야 한다. 북한 스스로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고립될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못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북한을 뛰어넘어서 러시아와 손을 잡아서 북한 체제 위기가 발생하면 부득불 북한이 한국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길을 만들어 주면서 북한 스스로 무장해제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다. 북한이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북한의 체제가 유연하게 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동해와 서해, 황해 바다를 통해서 한반도 대운하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부산에서 경부 운하와 경상남도를 통해서 서울, 강화에서 다시 개성으로 예성강과 임진강 통해서 대동강, 압록강, 블라디보스톡까지 해서 극동으로 진출한다. 또 하나의 해운이 된다. 이 길을 나중에 우리가 PKR 종단철도와 같이, 도로 철도 지하를 뚫는 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다. 이는 러시아도 대한민국을 못 따라 간다. 결국 우리가 5시간 안에 부산에서 모스크바로 진출할 수 있는 남북종단과 시베리아철도만 연결한다면, 그 길에 대해서 북한 스스로 무장해제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내가 갔을 때 이타르타스 통신 사장이 저보고 자기는 김정일과 친하다, 한국에서 온 정치인 중에 이 특사의 말이 가장 감명 깊었다, 당장 김정일과 당신(이 특사)하고 단독 면담을 주선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신이 한 이야기를 해라, 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우리가 왜 시베리아 개발하는데 북한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김정일은 바로 인식하라,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한국에서 온 어떤 누구도 김정일한테 적나라하게 북한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 개혁개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자리를 자기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우리의 안보는 북한이 스스로 무장해제하도록 만들고,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북한이 스스로 핵을 해제하고 북한이 동부시베리아 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려면 러시아를 일정하게 끌어들이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왜 접근성을 갖고 있느냐가 러시아가 항상 중국과 일본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서도 한국과 손을 잡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는 것이 만약에 북한이 붕괴되었을 때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북한을 독립시키려 하는 것도 러시아의 한 의도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안보는 튼튼할수록 외교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주국방을 튼튼히 할수록 우리가 펼치려고 하는 북방외교정책에 도움이 된다는 이런 인식을 확고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지난날의 노무현 정부와 DJ정부와는 다른 생각이다. 그 분들은 햇볕을 통해 북한과의 유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려고 했으나, 우리는 경제적 이해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무장해제 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야 한

다. 그런 의미에서 자주국방은 안보는 강할수록 좋고 한미동맹 강할수록 좋다.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적어도 이러한 노선이 이명박 정부의 확고한 대북 노선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 ■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문하겠다. 우리가 시베리아 석유, 가스를 사오는 것은 상업 베이스로 사오는 거, 돈 주고 사오는 건데 왜 가스하고 석유만 달라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그 쪽에서도 석유와 가스를 팔아야 하는 거고 우리는 돈 주고 사오는 건데 물론 그 쪽에서는 일종의 셀러스 마케팅이니까 시베리아 종합 개발에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당근 하나를 더 주면서 좀 석유 가스를 팔아라 하면 협상은 유리하겠으나, 왜 이리 배짱을 튀기는지 저 같은 경제 문외한은 잘 이해가 안 간다.

그 다음은 에너지 외교하고 핵 문제를 링크시키시는데, 지금 핵 문제는 마지막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 여기서 신고 문제가 타결이 안 되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는 상당히 장기화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의 대 러시아 에너지 외교를 비핵화 프로세스와 너무 연결시키면 지금 염려대로 장기화로 가는 경우에는 에너지 외교도 잘 안되고 북한 핵문제는 핵대로 안 된다는 염려가 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중국 사람들과 비교할 때에 러시아 사람들은 제 경험으로는 좀 부푸는 게 있다. 이타르타스 통신 사장이 김정일 만나게 해주겠다 하는 투의 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그 다음에 나는 정치적인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의원께서 먼저 말씀했다. 유실장께서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냐고 한다는 것에 대해 이 의원께서 인도스를 하셨는데 동기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것이 김대중, 노무현 팀하고 막후에 달이 있었던 거 아닌가. 만약에 지난 10년이 아니라면 무엇을 취하냐, 거기서 mb 정부가 취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해 달라.

### ■ 이재오 의원

: 나는 말을 애 둘러 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이다. 물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에너지 위기에 자원 확보가 기본이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한국에 경제적 이득을 주기 위해 석유와 가스를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부시베리아 개발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에서 의견을 같이 했을 때 러시아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합치되지 않은가. 그런 점에서 러시아에 가서 너무 장사하는 사람한테 석유에만 집착해서는 러시아가 쉽게 동의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돈이 많으니까 한국에 석유를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 배짱을 갖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관계만 갖고는 러시아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종합적인 프로그램 속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석유와 가스를 확보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유 실장의 이야기를 한 것에 오해가 있었던 거 같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지난 10년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잃은 것만 있겠는가. 그 중에 단 하나라도 얻은 것이 있겠다. 얻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이라도 얻었다. 예를 들어서 대북 관계에서도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10억을 달라고 하면 줬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다. 우리는 너희가 10억이 필요하면 우리는 1억만 민족적 차원에서 지원 할 테니까 나머지 9억 원은 1억을 통해서 벌어들여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살지, 우리가 너희가 달라는 대로 매번 갖다 주고, 우리가 평화를 돈으로 살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런 입장에서 생산적 상호주의를 우리가 북한에 확실히 내세울 거다. 그런 점에서 지난 정부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 정권 10년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갖게 한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제2의 핵무장 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점에 말한 거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모두 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너무 상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적인 그런 말은 아니다. 지난 10년의 잃어버린 것은 명확하게 평가를 해 줄 거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배운 것이고 그런 점에서 유 실장이 말한 것을 설명한 거다. 나는 한나라당의 중심인데,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출발선이 깨끗하다는 오해 없애기 위해 말한 것이다.

#### ■ 정준명 삼성인력개발원 사장

: 기대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안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북방 4개 섬 문제로 러시아와 바다 문제를 이야기 하고 있다. 오호츠크, 베이징 등을 포함해서 기후 변화로 우리가 좋아하는 물고기들이 자꾸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어업협정이란던지 어로문제, 어업기지, 사할린 말고도 여러 지역 구상 중이다. 그리고 먹는 물도 수자원이지만 바다의 해양자원도 굉장히 중요하고 일본은 러시아하고 협상을 많이 하려고 한다. 러시아가 전문가도 없고, 예를 들어 고기를 잡아도 냉장냉동 가공 기술이 없던지 또 어로기지가 기지다운 곳이 없다. 일본이 그걸 노리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바다 쪽에 시선을 두시고 러시아와 일본이 다 나눠 먹기 전에, 그리고 중국이 아직 바다에 신경을 덜 쓸 때 우리가 바다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시고 러시아와 협상하실 때 반영해 달라.

#### ■ 사회자

: 이것으로 24회 동북아 미래포럼을 끝마치겠다. 말씀해주신 이재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끝-